

희생의 즐거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나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고후 12:15).

: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실 때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애착에 따라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시험하는 최대의 시험입니다. 희생의 즐거움이란 나의 ‘친구’(예수님)를 위해 나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단번에 목숨을 내던진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주님 및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사람들을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로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고전 9:22).

하나님과 홀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멀리 떠나 있으면 그는 동료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벗어나 아무도 없는 곳에 멋진 동상으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만을 위해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분을 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발털이개’가 되는 비결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하기보다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해준다는 여러 견해들에 헌신하기 쉽습니다. 바울이 헌신하는 동기는 예수님과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골 1:24). 너무 과장된 표현입니까? 사랑에 빠진 자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희생의 즐거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나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고후 12:15)

1. 일치된 관심

어제 묵상이 ‘섬김’을 위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섬김을 위한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물었다면, 오늘은 그 섬김을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실 때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일치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묵상을 통해 깨닫는 것이지만, 챔버스는 우리의 사역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끊임 없이 묻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은 ‘육적 동기’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섬김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일치된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실 때, 그리스도와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동일한 관심에서 우리는 ‘자신의 애착’의 시험을 극복하게 됩니다. “희생의 즐거움이란 나의 ‘친구’(예수님)를 위해 나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사도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 될 때, 사도바울은 자신의 방법, 자기 애착,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순종]에 보면 1907년 일본으로 가는 배안에서 그러한 경험을 했던 챔버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된 7명의 예일 대학생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고 영적인 것에 마음이 열려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챔버스가 그들과 더 어울릴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 때의 경험을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자신들의 상황 외에는 다른 삶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확신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바울처럼 각 사람에게 자신을 맞출 수 있는 인품이 필요하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전 9: 19)

우리가 늘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의 마음의 열정과 주님을 위한 희생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주님과 일치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유연해지고,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 사랑에 빠질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까요? 챔버스는 기꺼이 현신의 즐거움을 아는 자를 하나님

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섭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거룩’을 위해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과 떨어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세속화’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명자’가 되었느냐는 물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어제의 묵상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챔버스는 ‘신발털이개’(door-ma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드나들 때 맑고 다니는 신발털이개로 사용되는 것이 즐겁다는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분을 내지 않고 즐겁게 사용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9장 20절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희생의 즐거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여러 면에서 사악하고 못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못된 야곱에게 순결하고 맑은 기간이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이러한 기간을 주시면 잘 기억해 두라. 창세기 29장 20절처럼 인간의 순수한 사랑에 대하여 그렇게 잘 묘사한 곳은 없을 것이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을 위하여 아무리 수고와 희생을 많이 하더라도 그 수고와 희생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다. 만일 의무적으로 수고와 희생을 치르면 고통과 속상한 마음이 생긴다. 사랑의 속성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사랑에 빠진 자에게 그가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치른 대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는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을 위해 온전히 헌신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헌신의 즐거움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온전히 자신의 몸을 드리며 즐거워 한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는 다소 과장되어 보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도바울의 고백은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다는 참된 고백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① 자기 애착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으로 쓰실 수는 없습니다.
- ②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는 기꺼이 ‘신발털이개’ 되어도 괜찮습니다’라는 마음입니다.

묵상 질문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쓰실 수 있는 유용한 도구 인가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기꺼이 ‘신발털이개’가 되었나요?

묵상례시피 | 마태복음 19:16-26 + 고린도후서 12:15

예수님은 부자청년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부자 청년이 이해한 ‘계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8-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입니까? (21절)

계명을 깨닫는 일, 결단하는 일, 실행하는 일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26절)

부자청년의 질문이 예수님, 제자들의 입을 통해 각각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16, 17, 25절)

21절에 담긴 예수님의 관심,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의 방향, 우리가 힘쓸 일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16절)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로주의).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간다(17절)’는 말로 바꾸시고, 제자들은 ‘구원을 얻는다(25절)’는 말로 이 질문을 받고 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며, 구원을 얻는 것이다. 결국 주어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 청년이 이르되(20절) ‘청년’은 40세 이전의 사람이다. ‘청년’은 미성숙을 의미하지만, 오늘 본문의 ‘청년’은 종교적으로 이미 성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영생’에 관심하고 있었다. 길을 찾는 구도자였다. 그러나 그의 관심과 방향, 혼신의 범위는 예수님의 것과 달랐다.

짧은 기도

아버지, 제 자신을 당신 손에 드립니다.

주님께 저를 양도합니다.

주님 원대로 제게 행하소서.

어떻게 하시든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슨 일에든 감사함으로 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안에 그리고 당신의 모든 피조물 안에,

당신의 모든 자녀들 안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 안에

주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제 마음의 모든 사랑과 함께.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제 사랑이 그렇게 하도록 강권하기에 제 자신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한없는 믿음으로 저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샤를 드 푸코_ 맡기는 기도 (1858-1916, 프랑스 수도사) 「사귐의 기도」 549